

-(으)로 말미암아

~로 인하여, ~에서 비롯되어

한국어에서 가장 격식 높은 말투로 원인을 나타냅니다. -(으)로 인해가 공문서에 쓰인다면, 이 표현은 문학 작품이나 판결문에 쓰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명사 종류	형태	예
받침 있음	으로 말미암아	가뭄으로 말미암아
받침 없음	로 말미암아	사고로 말미암아
ㄹ 받침	로 말미암아	불로 말미암아
명사 앞	-(으)로 말미암은	오해로 말미암은 갈등
원인은	중대한 것	전쟁, 질병, 정책
표준 격식 표현	-(으)로 인해	사고로 인해

■ 언제 쓰나요

조사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. 받침 있는 명사에는 으로, 받침 없는 명사와 ㄹ 받침 명사에는 로를 붙입니다. 관형형은 말미암은입니다.

명사에만 붙으며, 원인은 보통 중대한 것입니다. 전쟁, 질병, 정책, 오해 등입니다. 사소한 일상적 원인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

결과는 대개 답갑지 않은것으로, 인해와 마찬가지로: 오랜 가뭄으로 말미암아 수확이 크게 줄었다.

인해와의 차이는 격식의 정도뿐입니다. 인해는 표준적인 격식 표현이고, 말미암아는 한 단계 더 높아 뚜렷하게 문어적으로 들립니다.

■ 예문

- 1 오랜 가뭄으로 말미암아 수확이 크게 줄었다.
- 2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났다.
- 3 사소한 오해로 말미암은 갈등이었습니다.
- 4 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장 구조가 재편되었다.
- 5 부품을 직접 만든 데서 말미암은 지연이었다.
- 6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.

■ 비교

-(으)로 인해
뜻은 같고 격식이 한 단계 낮습니다. 인해는 공문서에서 쓰는 표준 표현이고, 말미암아는 문어적이고 더 무게가 있습니다.
사고로 인해 지연됐다. (공지) / 전쟁으로 말미암아 흠어졌다. (역사, 문학)

-에 힘입어
긍정적인 짝 표현입니다. 힘입어는 좋은 영향을 준 힘을 밝히고, 말미암아는 대개 나쁜 일의 원인을 밝힙니다.
지원에 힘입어 성장했다. (지원 덕분에) / 가뭄으로 말미암아 줄었다. (가뭄 때문에)

-에 의해
의해는 피동문에서 행위자를 나타내고, 말미암아는 원인이나 상황을 나타냅니다.
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다. (위원회가 결정) / 가뭄으로 말미암아 줄었다. (가뭄 때문에)

■ 주의

- ✗ 늦잠으로 말미암아 지각했습니다.
○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했습니다.
이 표현은 중대한 원인에 어울립니다. 개인적인 사소한 실수에 쓰면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.
- ✗ 오해로 말미암아 갈등이었습니다.
○ 오해로 말미암은 갈등이었습니다.
뒤의 명사를 꾸밀 때는 말미암아가 아니라 말미암은을 써야 합니다.
- ✗ 지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성장했다.
○ 지원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다.
비문은 아니지만, 좋은 영향으로 좋은 결과가 생긴 경우에는 힘입어가 자연스럽습니다.